

사회주의 성향의 과학자, 역사가

〇 〇



중국 과학사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니덤(1900~1995)

기독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런지
에릭 홉스봄처럼 영국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고
영국 노동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에는 공화파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태평양전쟁 때는 중국으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중국 과학사 연구에 열중했음

이후 한국전쟁 시기에는 미군의 세균전 의혹을 비판하고
이를 규명하려는 국제 조사단에 참여했다가
당시 악명을 떨치던 매카시즘으로 인해 연구자 생활이 완전히 끝장날 뻔하기도 했었고